

조선중기 ‘언간(한글편지)’을 통한 생활 속의 문해교육

이은희(공주대학교 박사수료)*

요약

본 연구는 문해교육의 시작을 문자가 만들어진 조선시대로 보고, 조선시대에 문해교육이 있었음을 언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조선 중기에 쓰인 진주 하씨의 무덤에서 나온 편지 모음인 백두현의 《현풍곽씨언간 주해》(백두현, 2004), 《조선왕조실록》과 《친필언간총람(新筆諺簡總攬)》(김일근, 1974)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중기 문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선중기 ‘언간’이 가지는 문해교육적 의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 중기에 다양한 계층에서 쓰인 ‘언간’을 통해 조선중기의 한글교육과 한글의 활용을 살펴 보았다. 조선중기 ‘언간’은 가정에서 문해교육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조선중기의 문해교육이 무형식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과 생생한 생활을 ‘언간’에 드러내어 서로 의사소통 역할을 하였다. 조선중기 문해교육의 대상은 세자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었다. 조선중기 문해교육은 모두에게 생활 속에서 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음도 보여준다.

또한 편지가 당시의 생활상과 문화전수의 역할을 했음도 알 수 있다. 편지에는 의·식·주와 전통 의례, 풍습과 손님맞이 등 다양한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언간, 언서, 언문, 문해교육

I. 서론

세계적으로 문자를 만든 시기와 만든 사람이 알려진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 한글이 창제되고, 50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당시에 문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다. 고종의 국문반포 이후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학제가 만들어지면서 조선의 국어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일체의 강점으로 인해 언어교육은 다시 수렁 속으로 빠지고 ‘야학’의

*주저자: 이은희(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eun-1010@hanmail.net)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한말 ‘개화’와 ‘자강’의 사상이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개화사상은 교육에 대한 욕구로 표출되어 야학은 시작되었다. 개화사상은 민중을 계몽해야하는 사명감까지 가지게 되고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야학이 시작된다(천성호, 2009). 이와 함께 1925년 브나로드 운동¹⁾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중심이 되어 농민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문자보급운동이 일어났다. 문자보급 운동(문맹퇴치운동)은 민족자강운동의 일환으로, 종교단체와 민족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야학이 발달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야학은 문해교육을 통한 민족의식과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였으며, 일제의 탄압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야학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문해교육의 한 장(場)을 이루고 있다.

문해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다양하다.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만을 문해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그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까지를 문해의 범위로 인정해야하는 지 그 의견이 다양하다. 오늘날 문해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사회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는 범위까지를 문해의 범위로 보고 있다(황종건, 1990). 이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하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하는 것까지를 문해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 중기에 쓰인 ‘언간(한글편지)’은 다양한 계층에서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문해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자료라 하겠다.

조선시대 문해교육, 특히 ‘언간’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국문학에서 국어생활사의 영역으로 연구되었다. 교육학에서는 황종건이 문해교육의 관점에서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만들어 지고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아야한다고 밝혔으며(한국의 문해교육, 2005), 윤복남은 <한국문해교육의 사회사적 고찰>에서 조선시대가 문해교육의 시작이어야 함을 제기하고 있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연구되지 못했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윤복남, 1990). 국문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간에 대한 연구는 어문생활사의 연구방법과 고문서의 분류체계와 연구내용을 기술(김은성 : 2007, 백두현 : 2010)하고 있으며, 생활사를 통해 국어생활사

1) ‘브나로드(v narod)’는 제정(帝政)러시아 말기에 소련의 지식인들이,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민중 속으로 가자.’는 뜻의 러시아말 구호이다. 이 구호를 내세우고 1874년 수백 명의 러시아 청년학생들이 농촌으로 들어가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일보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규모의 문맹퇴치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제3회까지 이 운동을 ‘브나로드’로 부르다가 민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라 하여 제4회부터 ‘계몽운동’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금지 조치로 계속하지 못하였다.
<http://terms.naver.com>[네이버 지식백과] 브나로드운동 [一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15. 9. 7 인출

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조태린 : 2009). 김일근은 왕실의 언간을 수집하고 번역하여 언간이 문학사적으로 중요함을 밝히고 있으며(김일근:1972, 1974), 백낙천은 ‘언간’에 대해 연구하기는 했으나 문해교육이라기보다는 언간이 국어생활의 자료로서의 중요성과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백낙천 : 2007). 국어생활사를 통해 문학작품의 가치를 규명해 보는(장윤희 : 2005)정도에서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언간이나 문학작품을 통해 국어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당시의 언어현상이나 음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백두현은 언간집을 통해 당시의 언어와 함께 문화사적으로 언간이 중요한 자료임을 밝히고 있다(백두현 : 2004). 당시에 사용된 언어를 통해 언어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언어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렇게 사용된 근간에 자리한 문해교육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문해교육의 시작을 문자가 만들어진 조선시대로 보고, 조선시대의 문해교육이 있었음을 언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문해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그 대상은 누구인지, 조선중기 문해교육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진주 하씨의 무덤에서 나온 편지 모음인 백두현의 《현풍곽씨언간 주해》(백두현, 2004), 《조선왕조실록》과 《친필언간총람(新筆諺簡總覽)》(김일근, 1974)을 대상으로 한다.

II. 조선전기 ‘언문’의 창제와 통치와 교화로서의 문해교육

1. 훈민정음의 또 다른 이름 ‘언문’

언문은 일반적으로 한자에 비해 한글을 낮추어 부르는 말로 알려져 있다. 어떤 이유로 언문이 한글을 낮추어 부르는 이름으로 규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어사전에도 언문은 ‘상 말을 적는 문자라는 뜻으로, ‘한글’을 속되게 이르던 말’로 기록되어 있다. ‘언문’과 ‘훈민정음’의 명칭에 대한 연구는 국문학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다. 기영미는 ‘언문’이 훈민정음의 또 다른 이름으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기영미, 2009 ; 홍현보, 2012), 더 나아가 ‘한글이 왕에 의해 만들어졌고, 국가 시험에도 채택되었으며, 조선 후기까지 제도적으로 쓰였으므로 ‘언문’은 공식적인 문자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김슬옹, 2005a, 2010).

연구자 역시 언문은 우리글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다른 말이며 오히려 글을 창제했을 때 최초로 불린 공식적인 이름이라 생각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25년(1443년) 12월 30일자에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직 반포하기 전인 1443년에 이미 공식적인 이름으로 언문(諺文)으로 칭했으며 그 언문을 훈민정음이라 불렀고, 훈민정음보다 먼저 불리어졌음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세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왕이나 왕비 신하들 모두 훈민정음보다는 언문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쓰인 빈도수를 보면 훈민정음은 12회에 불과한 반면 언문은 204회에 걸쳐 쓰인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김슬옹, 2005a). 이외에도 ‘언문교지’, ‘언간’, ‘언서’, ‘언지’ 등으로 쓰였다. 이 때 쓰인 ‘언(諺)’이란 한글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곧 ‘언(諺)’이란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왕이 만들었고 스스로 칭(稱)한 언문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인 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언간(諺簡) 또한 단순한 한글편지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여기에 쓰인 언(諺) 역시 ‘언문’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아니라 단지 훈민정음의 다른 명칭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고종이 언문을 ‘국문(國文)’으로 칭 할 때까지 한글은 ‘언서’ 혹은 ‘언문’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로 왕실에서는 계속 사용되어 왔다는 점 또한 ‘언문’이 훈민정음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글이라는 교화적 의미의 ‘훈민정음’보다 평등적이며 중립적인 우리말이라는 ‘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언문’의 창제배경과 통치와 교화로서의 언문문해교육

가. 창제동기

언문(훈민정음)창제의 동기는 훈민정음 서문을 통해 보면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글이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당시 조선의 윤리규범이었던 유교의 사상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1428년 진주에 사는 김화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자 세종은 설순에게 명하여 효행록을 만들어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세종 10년). 효행록은 전해지지 않으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여 그림을 첨부한 《삼강행실도》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전파하여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백성들이 문자를 알지 못하여 책을 비록 나누어 주었을지라도, 남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역시 어찌 그 뜻을 알아서 감동하고 착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리오... 서울의 한 성부 오부(漢城府五部)와 외방의 감사(監司)·수령(守令)은 널리 학식이 있는 자를 구하여 두터이 장려를 더하도록 하되, 귀천(貴賤)을 말할 것 없이 항상 가르치고 익히게 하여, 부녀까지도 친속(親屬)으로 하여금 정성껏 가르쳐 분명히 깨달아 모두 다 알도록 하고, 입으로 외우

고 마음으로 생각하여 아침에 더하고 저녁에 진취하여, 그 천성의 본연(本然)을 감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게 되면, 아들된 자는 효도를 다할 것을 생각하고, 신하된 자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며, 남편된 자와 아내된 자도 모두 자기의 도리를 다하게 되어, ...

(세종 16년, 1434년)

세종은 그림만으로는 백성들에게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삼강행실도》를 편찬 한 후에도 고을의 수령은 물론 학식 있는 사람을 찾아 백성들에게 강론하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창제된 것이 언문이었다. 백성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던 군주의 마음도 있었지만, 통치자로서 백성들에게 유교의 덕목을 전달한 목적으로 한글을 제정한 일면이 보인다. 언문의 창제 동기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자가 어려워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법조문을 이두문으로 번역할 것을 명하지만(조선왕조실록, 세종 14년), 이두 역시 한자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므로 백성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²⁾ 언문을 창제하게 된 것이다. 언어가 가지는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훈민정음은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법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나. 통치와 교화로서의 언문교육

백성들의 삶을 위해 창제된 '언문'이었지만, 조선시대는 중국의 성리학을 기초로 세워진 국가로 공식적인 문자는 한문이어서, 교육기관을 통한 언문(한글)교육이 이루어지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언문이 창제된 당시에는 단지 글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는 언문 제작의 부당함에 대한 반대 상소를 올리기도(조선왕조실록, 세종26년) 하였지만,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훈민정음이 만들어 진 직후인 세종 28년 12월 하급 관리직에 국한하여, 과거 시험에 훈민정음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였다. 뜻은 통하지 못하더라도 읽을 수 있는 자를 뽑도록 하였으며, 훈민정음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다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세종 28년 12월). 또한 윤7월의 교지(教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함길도의 자제로서 내시(內侍)·다방(茶房)의 지인(知印)이나 녹사(錄事)에 소속되고 자하는 자는 글씨 · 산술(算術) · 법률 · 《가례(家禮)》 · 《원속육전(元續六典)》 · 삼재(三

2)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글이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것은 적어도 한글창제로 백성들에게 기능문해의 수준까지는 알리려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才)를 시행하여 입격한 자를 취재하라. ... 먼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관리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 세종29년).

과거시험에서 훈민정음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시험을 위한 한글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다른 시험을 보기 위한 기본 시험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더더욱 의미 있는 일이다. 과거시험에 훈민정음이 채택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기관을 만들거나 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세종의 이 칙령은, 비록 하급관리를 뽑는 과거시험이기는 했지만, 과거시험의 한 과목으로 자리했다는 점에서 언문 문해교육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통치수단으로 언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 왕실에서의 언문교육

왕실에서의 제도적 교육의 또 다른 흔적은 세자의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자를 교육하는 시강원의 상소에서 서언관(書筵官) 10명 중 언문(諺文)과 의서(醫書)를 제외하여 여섯 명이 강론을 해야 해서 토론도 어렵고 세자의 학문에도 어려우니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서언관의 일만 하도록 부탁하는 상소를 하고 있다(조선왕조실록, 세종29년). 이 상소에서 보면 10명의 서언관 중 4명이 언문과 의서라 하니 적어도 한명은 세자에게 언문을 가르쳤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즉 세자에게 어떤 형식이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왕자에게 언문을 가르쳤던 관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숙종 조에는 세자의 보모가 세자에게 언문을 가르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소학(小學)》·《효경(孝經)》가운데에서 알기 쉬운 좋은 말을 뽑아 언서(諺書)로 번역하여 동궁(東宮)의 보모(保姆)를 시켜 아침저녁으로 가르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17년, 1691년)

이를 볼 때 왕실에서는 공적, 사적으로 세자에게 언문 문해교육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왕실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해 문해교육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왕실에서는 왕, 대비, 왕대비 등이 정치와 관련하여 언문으로 된 교지를 내린 것을 보면, 왕

실에서는 교육을 통해 언문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언문교육이 정치의 수단으로 백성들의 통치와 교화를 위해 행해졌음을 보여준다.

Ⅲ. 조선 중기 언문의 생활 속 활용 ‘언간’

조선 전기가 통치와 교화를 위해 언문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중기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언문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언간(한글편지)인데, 편지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장르이다. 편지란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 편지란 약간의 격식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편리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편지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편지의 사용이란 문해의 개념에서 볼 때 창작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이라 매우 깊이 있는 문해교육의 영역이라 볼 수 있다.

한글 편지를 조선시대에는 ‘언간(諺簡)’이라 불렀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언찰(諺札), 언서(諺書)로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한글로 된 편지를 의미하지만, 언서(諺書)의 경우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한글로 된 문서를 이른다. 즉, 편지뿐만 아니라 왕이나 대비 등의 한글교서(敎書), 유언, 재판 판결문, 매매문서 등 한글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글을 포괄하고 있다. 한글로 쓰여진 모든 글은 언문(諺文)이라 하므로 언서와 언문은 동일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적으로 쓰인 편지글인 ‘언간’을 중심으로 고찰하려한다.

1. 언문편지 《현풍곽씨언간》, 《친필언간총람(新筆諺簡總攬)》

본 연구는 사대부가의 한글편지 중 17세기 지방의 양반이었던 현풍곽씨 곽주의 아내인 진주 하씨의 무덤에서 출토된 편지를 모은 《현풍곽씨언간》(2004)과 왕실에서 주고받은 편지 모음집인《친필언간총람(新筆諺簡總攬)》(1974)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언간은 17세기 이후에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된 듯하다. 19세기 초에는 편지의 표지 쓰는 방법과, 편지 쓰는 순서와 형식을 기록한 《언간독(諺簡牘)》³⁾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언간’은 자신의 생각을

3) 한문편지를 ‘간독’이라 부르는데, 한글편지임을 나타내기 위해 ‘언간독’이라 부름.

현존 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목판 1책에 상하편으로 나누어지고 전체 30장, 1면 15행의 폐선

드러낼 수 있는 편지의 형식이라 다양한 계층에서 두루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풍곽씨언간》(2004)은 1989년 진주 하씨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170여 통의 편지를 모아 묶은 것이다. 이처럼 많은 편지가 오고 이유는 곽주의 부인 하씨는 두 번째 부인으로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인 큰 아들이 결혼 당시 24세였다. 장성한 아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고려하여 두 부부는 한 집에 살지 않고 편지를 통해 안부를 전하고, 남편이 오고간 것으로 보인다. 모두 172편의 편지가 실려 있는데 이중 5편은 한문으로 쓰였다. 백두현은 이 자료를 곽주가 부인에게 쓴 편지, 출가한 딸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편지, 곽주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출가한 딸이 시누이에게 보낸 편지, 안사돈간의 편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편지들은 곽씨의 부인 진주 하씨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곽씨 문중 사람이 쓴 것이라 ‘현풍곽씨언간’이라 칭했다. 이 중 곽주가 부인 하씨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출가한 딸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편지가 많다.

《현풍곽씨언간》(2004)에 실린 편지들은 임진왜란이 직후인 1602년에서 대략 1652년에 걸친 편지 모음집이다. 편지를 살펴보면 곽주는 당시 지방의 양반으로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땅도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편지를 통해 보면 임진왜란 이후 궁핍한 삶의 모습도 보인다. “날 가문 것을 보니 보리밥도 먹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에 가 쌀을 구하겠는가?”에서 보이듯이 전쟁으로 인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내용도 드러나고 있다. 《현풍곽씨언간》(2004)은 17세기 지방 양반의 세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편지 중 일부는 당시의 한글 교육 모습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진주 하씨의 편지는 한글 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의·식·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백두현, 2004).

왕실에서 주고받은 편지 모음인 《친필언간총람(新筆諺簡總攬)》(1974)은 김일근이 왕실에서 주고받은 한글편지를 모아 필사본 그대로를 모아 묶은 책으로 궁에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나 아들로서의 사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선조임금에서 순조임금까지 조선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200여년에 걸친 왕들의 편지가 묶여있다. 사적인 편지이기는 하나 임진왜란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편지(김일근, 1974 : 13쪽, 선조대왕 어필 언간 2)에서 왕으로서의 고뇌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중기부터는 언문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언어가 가지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사용됐음을 알려주며, 이는 왕실에서도 한글교육의 존재를 알려주는 또 다른 자료이기도 하다.

이 그어졌으며 22cm의 정방형이다. 사대부가의 부녀자와 일반 서민들의 편지쓰기의 교과서 역할을 하였으니 많은 이본과 필사본이 유행하였다.

<http://terms.naver.com>[네이버 지식백과] 언간독 [諺簡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015. 9. 7 인출

왕실이나 사대부의 편지는 당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왕실은 격식을 벗어나 사적인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모습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대부에서 남긴 《현풍곽씨언간》(2004)에서는 사대부가의 삶의 모습과, 언문교육의 모습 등 다양한 교육적 자료가 실려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왕실에서의 언간도 고찰하지만, 사대부가의 언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깊이 있는 감정의 소통 《친필언간총람(新筆諺簡總攬)》

왕실에서의 '언간'은 다방면에서 사용되었다. 당시 한문이 공식적인 언어로 공적인 영역에서 쓰인 제 1의 언어였다면 언문은 제 2의 언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였다. 공적인 곳에서의 기록으로는 한문을 썼겠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자신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 한문은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왕실에서는 편지를 통해 깊이 있는 감정을 한문이 아닌 한글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표현했음을 보여준다. 왕실에서의 언간은 왕으로서보다는 아버지나 아들로서의 모습이 편지들에서 보인다. 정무에서 벗어나 느끼는 소소한 감정과 심지어 농담도 편지를 통해 주고 받고 있다. 이는 한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언문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기능을 보여준다. 다음에 보이는 언간은 《친필언간총람(新筆諺簡總攬)》(1974)에서 발췌한 왕들의 편지로 첫 편지는 딸에게, 두 번째는 제부에게, 세 번째는 자전(慈殿) 즉,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이다.

글을 보고 잘 있으니 기뻐하노라. 나도 무사히 있노라. 전쟁으로 나라 이리 어지럽고 이제 어느 겨울에 군인 하나인들 어디가 얻으리. 왜적도 가을에 전라로 치려한다 하는 기별도 있으니 더욱 심심하여(심난하여) 하노라. 보내는 것 찾아라.

(선조대왕 어필(御筆) 언간(諺簡)현대어 풀이)

너희는 셋이 마치 한 말로 글을 적어서 가장 정성이 없으니 후에 또 이리 하면 아니 받을 것이니 알라

(효종대왕 어필(御筆) 언간(諺簡)현대어 풀이)

제현(齊賢) 사숙(思叔)아 반박지설(反駁之設) 극위과심의(極爲過甚矣) 이 말은 원래 누님이 그 책 이름을 알지 못하여 그 이름을 써 달라 하거늘 내 무섭게 여겨 그리 써 주니 누님이 부러 사숙을 욕하노라 보내었거늘 제현이 알지 못하여 감히 반박(反駁) 이자(二字)를 썼으니 이를 살피지 못한 죄를 후일 물을 것이니 그리 알라.

(현종대왕 어필(御筆) 언간(諺簡) 현대어 풀이)

지난 번 가실 때 서씨 성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을 말씀드렸더니 분주한 가운데 이야기의 말미를 미처 알리지 못하니 알아오라 많이 보채니 남을 샘하는 마음이 두려워 이 때 즉시 알아라 하셨습니다. 다리에 돋은 것은 약 바르고 침 맞기로 넘어 못 가니 더욱 섭섭합니다. 이삼일 안에 다시 뵈겠습니다.

(현종대왕 어필(御筆) 언간(諺簡) 현대어 풀이)

선조대왕의 편지는 받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당시의 후궁인 숙의에게 보낸 편지로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잘 있다. 잘 지내는 것이 반갑고, 본인도 잘 지냄을 알린다. 또한 왕으로서 나라 걱정도 담고 있으며, 당시 왜군과의 전쟁 상황도 알 수 있는 편지이다. 두 번째 편지는 효종대왕이 세 딸 숙안, 숙명, 숙휘 공주가 모두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편지를 쓰고 세세한 정이 없어 이에 대해 꾸짖는 내용으로 보인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서운함이 묻어나는 글이다. 세 번째 편지는 궁중에서 근엄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무료함을 채우기 위한 농담이다. 제부(弟夫) 정제현에게 보낸 편지로 자신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반박한 점에 대해 후일 죄를 물을 것이라는 데서 농담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편지는 서로에게 공대하며, 예의를 지켜야하는 궁궐에서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어머니를 찾아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찾아가 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서운함도 표현되어 있다(김일근, 1974 : 13-22).

글월보고 무사히 있으니 기뻐하며 보는 듯 든든 반기노라. 사연도 보고 웃으며 시부모께 저리 사랑을 바치거늘 우리를 더욱 생각할까 싶으나. 부마도 들어왔으니 든든하다.

(인선왕후 어필 언간 현대어 풀이)

왕비의 편지로는 효종이 비(妃)인 인선왕후의 편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시집간 딸에게 시집에만 잘하는 딸에 대한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이외에도 왕과 딸에게 보낸 편지들이 존재한다(김일근, 1974). 이처럼 왕실에서는 언문을 사용해 공식적인 글인 언문교지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편지에 적어 서로 주고받으며 한문과 달리 언문만의 기능인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생활 속의 교육을 볼 수 있는 《현풍곽씨언간》

가. 감정 소통으로서의 언문편지

《헌풍곽씨언간》(2004)에는 《친필언간총람(新筆諺簡總攬)》(1974)보다 더욱 세세한 감정의 표현들 보인다. 아이의 머리에 종기가 나 걱정하는 편지가 4편이나 실려 있는데, 이는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드러내며, 아픈 아이와 함께 아내 또한 몸이 편치 않음을 걱정하는 남편과 아버지의 마음이 세세하게 드러난다. 또한 남편의 뜻에 따라 아이에게 뜬도 뜨고 침도 맞혔으나 아이가 낫지 않아 또 잃을까 걱정하는 부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난 편지이다.

자네 편히 앓은 데 어떠한지 기별 모라 걱정하네. 나는 지금 무사히 있네. 정냥이의 머리는 어떠한가? 더욱 잊지 못하여 하네. 아마도 자네 편지 앓은 데(곳)도 빨리 좋아지고 아이들 다 편히 있기를 바라네. 정냥이의 머리를 어쨌든 빨리 낫게 하소. 자네 병든 데 행여 더 좋지 않거든 즉시 내게 기별하고. 바빠 이만. 아이에게 글 힘써 읽으라 하소. 즉일 가서
(백두현, 2004 : 169쪽-필자해석첨가)

정냥이에게 달려들어 그저께 (뜸을) 뜨고 또 오늘 침을 맞고 하니 여위어 살가죽과 뼈만 (남아) 있습니다. 석옹황을 얻어 먹이고자 하되(석옹황을 하는 사람이)오지 않아서 구할 데가 없어서 민망하고 (아이가) 하도 나날이 파리해 지니 또 죽을까 싶습니다.

(백두현, 2004 : 507-509)

딸 정냥이와 관련된 편지는 아버님이 약을 만들어 주셨으니 아이가 싫다 해도 발라서 낫게 하라는 또 다른 두 편의 편지(백두현, 2004 : 93-100)가 있다. 또한 아내가 딸을 낳아도 서운하게 여기지 말라며 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로하며 면화를 보내 태어날 아이의 일을 대비하라는 편지도 있다(백두현, 2004 : 198-205). 이처럼 당시의 한글편지는 집안의 사소한 일이나 인간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왕실에서나 사대부에서나 한글편지에는 한문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세한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도구로써 한글 편지가 쓰였다. 편지를 한글로 쓴 것은 한문보다는 한글의 사용이 자신들이 전하고자 한 내용을 섬세하고 자세하게 표현하기 좋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왕실과 사대부에서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으며, 이에 대한 최고의 활용으로 언간(편지)이 사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나.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문해교육

‘언문’은 창제 당시부터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문자였다. 훈민정음 서문에서도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를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 내가 이를 위하여

28자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곧 '언문'은 글을 알든 모르든, 특히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으니, 모두의 문자이며,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글이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오히려 지배계층에서만 사용되었다. 이는 문자가 지배계층에서 만들어지고, 교육기관이 없었으므로 문자와 가까운 지배계층이 배우고 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방식을 가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언문이 조선 중기에 이르면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초창기 언문의 창제 시에 목적이었던 모두에게 유용한 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 중기에 이르면 언문은 사대부의 아녀자나, 아이들 심지어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언문을 알았음을 보여준다. 《현풍곽씨언간》(2004)에서도 노비로 추정되는 곽상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 곽주가 노비 곽상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17세기에는 노비들도 언문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편의 편지 내용으로 볼 때 곽상은 노비로 추정된다.

곽상에게

망아지가 병이 들었다고 하니 어느 망아지가 병이 들었으며, 이제 어떠하였느냐? 마침 왔거늘 들어가 고치라고 말하였거니와 일년이가 고친 후에도 빨리 좋아지지 아니하거든 김홍니마를 데려다가 자주 고쳐 빨리 좋아지게 하여라. 무사히 고쳐 빨리 성하게 되거든 내게 다시 기별하지 말고 혹시 빨리 좋아지지 아니 하거든 네가 친히 내게 와서 자세히 기별하여라. 벌써 좋아져 있거든 오지 마라

(백두현. 2004:235-236)

이 편지는 편지 내용으로 추측해 볼 때 곽상은 노비로 생각된다. 곽상에게 배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서 배자란 배지(牌旨)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할 때 주는 글이다. 즉, 곽주가 노비 곽상에게 배지를 보냈다는 것은 곧 노비도 글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노비에게 편지를 보내 망아지 병난 것에 대한 조치와 이에 대한 답변을 편지로 하지 말고(기별하지 말고) 직접 와서 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이 편지에 대한 답으로 노비 곽상이 쓴 글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노비에게 편지를 써서 “내게 다시 기별하지 말고 혹시 빨리 좋아지지 아니 하거든 네가 친히 내게 와서 자세히 기별하여라.”고 이른 점에서 노비도 글을 쓸 수 있었으며, 적어도 읽을 수는 있었음을 보여준다. 17세기경 언문은 왕실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열린 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

이 이외에도 언문 교육을 통해 글을 알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유서, 완의(합의문), 통문, 고목(공적으로 관리에게 알리는 글) 등이 있으며, 윤씨댁 윤인미가 노비 애순에게 발급한 배자, 연안 이씨가 노비 일삼에게 발급한 배자, 은진 송씨 댁 송규림이 소해남 작노 기축에게 발급한 배자 등의 자료가 있다(이상규. 2014). 이렇게 많은 곳에서 노비에게 배자를 발

급했다는 것은 일부이기는 했겠지만 노비들이 글을 읽고 쓸 수는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노비에게도 한글교육이 어떤 형태로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무형식의 문해교육

《현풍곽씨언간》(2004)에는 조선시대 언문교육이 이루어진 방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글이 창제된 후 2세기가 지난 17세기에는 지방의 양반가의 여자와 아이들도 한글을 배우고 사용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글과 관련된 편지는 장모와 아내에게 보낸 편지로 모두 3편이 있다. 곽주가 오야에 사는 장모 함산택에게 보낸 편지로 내용으로 봐서는 처가에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아우의 자식까지도 같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이 가 있을 때 수고스럽지만 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편지이다. 모두 아이들을 외가에 보내고 궁금한 아버지의 마음과 장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러나며, 이와 함께 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쳐 보내시옵소서. 수고스로우시겠으나 언문을 가르치옵소서.” (백두현, 2004 : 59쪽)라며 언문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장모에게 아이들의 한글 교육을 부탁한 것을 보면, 당시 사대부가의 여인들은 한글을 알고 있었으며 할머니가 손녀 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음을 보여준다.

아내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에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새해를 보내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작은아이가 어서 한글을 배워 자신에게 보여 달라는 아버지의 관심을 “철네는 쾌히 성하며 복네는 나를 생각하는가. 잠시도 잊지 못하여 하네. 작은 아기는 언문을 쾌히 배워서 내게 유무를 빨리하라 하소”(백두현, 2004 : 230쪽)로,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작은 아기는 언문을 쾌히 배워서 내게 유무를 빨리하라 하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가 빨리 언문을 배워 나에게 편지를 전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볼 때 어린 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여 소통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린아이들에게 배우기 어려운 한문보다는 언문을 가르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한글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가운데 아기 언문을 쾌히 배웠다가 내게 보이라 하고 셋째 아기도 이제는 쾌히 온전하여 있을 것이니 언문을 외워 있다가 보이라 이르소”에서도 아이들 모두에게 언문을 배워 아버지에 보일 수 있게 하라고 아내에게 당부하고 있다 (백두현, 2004 : 248쪽). 또한 언문을 외워 보이라는 점에서 당시 한글교육은 한문교육과 마찬가지로 외우는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외가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 언문을 공부하라 이르는 것은 앞의 편지에서 부탁한대로 할머니로부터 언문을 배우라는 말로 여겨진다. 언문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가한 딸이

어머니 하씨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공부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대임이에게 글을 쓰라 하십시오. 대임이와 동생들 셋에게 안부하시고 새해에 글 잘 하기를 바라노라 이르십시오. 남은 저보다 못한 것이(예전에는 다른 아이가 대임이 저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다 잘한다고 하니 부디 힘써 (글)읽으라 하십시오(백두현, 2004 : 599쪽)” 하며 동생들이 면학에 힘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라. ‘언간’을 통해 이루어진 문화전수

《현풍곽씨언간》에는 조선시대 중기의 다양한 문화가 담겨있다. 편지를 통해 혼례, 제례 등 우리의 전통의례와 손님맞이, 돌잡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풍속도 살펴 볼 수 있다. 문서가 가지고 있는 서지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가 전수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교육적 가치가 있는 문헌이라 하겠다. 《현풍곽씨언간》을 통해 당시의 남성의 복식이나, 아이들의 복식, 여인의 머리모양은 물론이고, 17세기 조선의 음식과 술 담그기 제례와 혼례 등 다양한 문화가 편지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1) 전통의례

곽씨 언간에는 전통의례와 관련해서는 제례, 상례, 혼례 등이 드러난다. ‘아주버님 병환에 약을 구하러 가니 행여 수무날 제사에 못 오거든 제사를 자네가 친히 하도록 하소...’(300-301).에서 보이듯이 당시에는 일이 있어 남편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부인이 제사를 주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삿밥도 아버지 계신 때부터 진지 지어 잡수시던 대로 팔과 쌀과 보리쌀을 섞어 잡수시게 하소. 제삿밥도 쌀밥을 이어서 할 길이 어려워 보리쌀과 섞어야 하는데, 하물며 다른 밥이야. 제사에도 쌀밥을 못 쓰면서 다른 데 잘 할까. 조금도 들은 체 말고 내 명령대로 하소.
(백두현, 2004:348-352)

당시 제사에서도 오늘날처럼 살아계실 때처럼 드셨던 음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편지는 1606년 이후에 쓰인 것으로 보는데(백두현, 2004 : 351) 이때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삶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외에도 제사에 쓸 떡쌀, 술, 메밀의 양을 적어 보낸 편지 등도 있다(백두현 2004 : 385, 409).

상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편지글이 있으나 단순히 문상을 다녀온 편지는 제외하고 당시의 상례와 관련된 의례만 살펴보기로 한다. 편지 중에 곽주가 상을 당해 이웃으로부터 받은

부조 물품이 있다. “권찰방택 감 한 접시, 석류 둘. 가산택 모과 셋, 석류 둘. 정참의택 모과 셋, 석류 둘. 질래택 모과 셋, 석류 둘. 허경력택 감 한 접시, 호두 세되.”(백두현 2004 : 472). 지금은 부조를 모두 돈으로 해결하지만, 당시에는 큰 것은 아니지만 이웃의 제사에 쓸 과일을 부조로 보낸 듯하다. 이 외에도 광주가 죽은 후 2년 만에 치르는 대상에서 안사돈끼리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은 편지(523-531)도 있다.

오늘날 성인식에 해당하는 관례에 대한 편지가 있다. 광주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로 관례가 마을 전체에 알리는 행사로 보인다.

요사이 아이들 데리고 어찌 계신고. 기별 몰라 걱정하네. 보름날 아기 초거례를 하라 하고 모다 시키니 내일 장의 가서 절육할 것을 대구나 아무것이나 사서 쓰도록 하소. 술은 먼저 빚어 놓았던 술을 쓰도록 하소. 당새기에 넣은 안주를 적으나마 남이 보임직하게 차려 보내소. 한 고을 어른신들을 다 청하니 너무 초라하게 하지마소. 바빠 이만. 죽일. 가서.
(백두현, 2004:305-308)

아이 관례에 쓸 물품과 보낼 때 어떻게 하여 보내라 하는 편지이다. 그리고 관례가 어른들에 의해 주관되고, 마을 전체가 참석하는 행사임을 알 수 있다. 관례는 마을 모든 어른신들을 모시고 치르고 음식도 같이 나눠먹으니 보기 좋게 차려 보내라 이르고 있다. 곧 관례는 마을 전체의 행사인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과 다르게 한 마을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일로 마을의 어른들이 주관하여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큰 행사이었던 것 같다.

이처럼 편지에 드러난 전통의례는 남편이 세세한 것까지 지시하고 있으며, 물론 한 집안의 편지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집안의 음식과 같은 것은 아내에 알아서 챙긴다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음식의 종류와 양, 어떻게 차리라는 것까지 알려줄 만큼 집안의 대소사를 남편이 관장했으며, 부부간에 사소한 것도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다정했던 것 같다. 또한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제사에서도 남편이 없을 경우는 아내가 주관했음도 보여주고 있다.

2) 전통풍속

민족의 전통 풍속은 민간에서 민간으로 구전되어 전해온다. 이러한 것들이 민간에서 구전되어 전해오는 까닭은 기록으로 남은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구전되어 오는 풍속이 《현풍곽씨언간》(2004)에는 기록으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행하고 있는 돌잡이의 풍습도 보인다. 물론 이 편지에는 돌잡이로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 대임이는 어제 생일에 무엇을 잡던고. ...”(현풍곽씨 언간 : 246)에서 당시에도 돌잡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서. 아침에 편지를 썼는데 어찌 답장을 아니 하시는가. 이상하게 생각 되네. 열 이튿날이 동지라고 하니 알아서 죽 쑤어 잡수시게 하소 .…”(현풍곽씨 언간 : 246). 아마도 동지 날 장모에게 죽을 쑤어 잡수시게 하라는 편지로 보인다. 동지 날 무슨 죽인지는 모르나 죽을 쑤어 먹었던 것은 오늘날과 동일한 것 같다. 17세기 초에도 우리가 동지에 팔죽 먹는 것과 같이 죽을 먹는 풍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침에 편지하고 다시 편지를 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도 두 번도 편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볼 때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우편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인편으로 편지가 오간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까운 거리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주머님이 오늘 가실 길에 우리집에 다녀가려 하시니, 진지도 옹게 잘 차리려니와 다담 상을 가장 좋게 차리게 하소. 내가 길에(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발상에 놓아 잡수게 하고. 다담상에 절육, 세실과 모과, 정과, 홍시, 자잠채, 수정과에는 석류를 띄워 놓고, 곁상에는 울 무죽과 녹두죽 두 가지를 쑤어 놓게 하소. 울무죽과 녹두죽을 놓는 반(盤)지에 놓아서 함께 놓게 하소. 안주로는 처음에 꿩고기를 구워 드리고, 두 번째는 대구를 구워드리고, 세 번째는 청어를 구워드리게 하소.

자네를 보려고 가시니, 머리를 꾸미고 가리매를 쓰도록 하소. 만이도 (아주머님을) 뵈게 하소. 여느 잡수실 것은 보아가며 차리소, 잔대와 규화를 김참봉 덕이나 초계택에서 인도록 하소. 가서.

(백두현, 2004:342-347)

이 편지에는 귀한 손님상에 대한 것들이 담겨있다. 시택어른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상차림에 대해 자신이 길 떠날 때 먹는 상에 차리라는 것으로 보인다. 백두현은 길에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상이라 했는데, 상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길 떠날 때 아내가 차려주는 상이 아닐까 한다. 이 상에 차려야할 음식의 종류와 죽 종류, 생선과 술 차림까지도 당부하고 있다. 머리도 꾸미고 머리를 가리는 것도 쓰라 몸가짐에 대해서도 당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손님맞이에서 해야 할 음식의 예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질병치료와 관련 있는 민간요법 등도 언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기, 고뿔(감기), 배앓이, 가슴앓이, 궂병 등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병과 그에 대한 약재도 기록되어 있다. 약재로는 생강(현풍곽씨 언간 : 302쪽, 703쪽), 석용황(현풍곽씨 언간 : 264쪽, 507쪽), 소주(현풍곽씨 언간 : 251쪽) 등을 약재로 삼았으며, 염소 중탕으로 출산 후에 보했음도 드러난다(현풍곽씨 언간 : 198쪽).

3) 의생활

언간에는 의생활과 관련하여 당시의 옷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옷감 짜기, 옷 만들기, 염색 등이 당시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현풍곽씨 언간 : 171쪽, 220쪽). 바느질에 관한 이야기, 남성용 의관의 명칭들도 보인다. 제사나 일상적으로 입었던 철릭과 중치마의 이름도 보인다(현풍곽씨 언간 : 321, 371). 앞에서 다루어진 손님맞이 머리모양이나, 아이들의 옷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소례에서 “아기네를 데려 오라”고 하시더라 하니 녕네와 덕네를 못 데려갈지라도 철네는 데려 가게 하소. 입은 것이 하도 없으니(=변변찮으니) 연초록 물든 것으로 저고리를 하고, 순개가 짜는 명주를 제 장옷 할 만큼만 베어서 자주색 물을 들여 장옷을 하고, 보라색을 가는 무염에 물들여 바지가지 하여 입혀 데려가게 하소. 잡탈 말고 하여 주고. 아니하지 못할 것이니 하는 김에 탈 말고 하여 입히소.

(백두현, 2004:435-437)

외출하는 아이의 옷까지 신경 쓰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편지이다. 어려운 살림에 아내가 뭐라 할까 봐 탈 말고 입히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동물이 병이 났을 때 고치는 민간요법(현풍곽씨 언간 : 239쪽)이나 옷 진으로 무엇을 하려했는지는 모르나 옷나 무에서 옷 진을 빼는 일에 아들이 하고 있고 옷 빼는 사람을 불러 빼라하는 것에서 옷을 빼는 사람이 따로 있었음도 알 수 있다(현풍곽씨 언간 : 309쪽).

《현풍곽씨언간》(2004)은 17세기 사대부가에서 오고간 편지이지만 그 곳에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들이 살았던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교육문제 등도 다루어진다. 무엇보다 조선 초기에 창제되고 확산되었던 언문이 17세기에 이르러 다양한 계층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글의 마지막 단계는 창작의 단계이다. 개인의 사소한 감정과 그들이 생각을 글로 표현한 편지는 언문교육이 마지막 단계인 창작의 단계에 이르렀고, 그 대상 또한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IV. 조선 중기 문해교육의 의미

‘언간(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중기의 문해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문자를 소유했던 계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문자를 소유한 계층인 왕실과 사대부에서 문해교육이 일어나고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면 일반 평민은 물론 노비조차도 한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왕실과 사대부에서는 편지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언문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노비들도 언문을 활용해 사용했다는 것을 볼 때, 일반 평민이나 중인계층에서도 언문이 자유롭게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조선중기의 한글 문해교육은 생활 속에서 무형식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시대 문해교육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글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모두를 위한 문해교육

조선시대에 문해교육의 목적은 세종 28년(1446년)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에서 알 수 있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訟事)를 청단(聽斷)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조선왕조실록)로 기록하여 언문의 필요성은 송사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조선시대 문해교육의 필요성은 모든 백성이 송사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백성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바랐던 언문창제의 목적과 달리 초창기 문해교육은 문자를 알던 계층에서만 이루어졌다. 이는 언문을 글자를 아는 자들이 배워 일반백성들에게 교육하는 비공식적 교육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백성들은 문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조선시대에 한글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었고, 여성들에게서만 쓰였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나, 언간을 통해 보면 실제로 조선중기 이후에는 삶에 폭 넓게 사용되었고 교육 또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물론이고, 다양한 계층에서 두루두루 사용된 것이 언문이었다. 특히 문자 소유 계층인 왕실이나 사대부에서 더 많이 언문이 사용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볼 때도 사대부층에서는 왕이나 대비의 언문교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역시 언문을 알아야했으며, 언문교지를 한문으로 바꾸어 기록해야했으므로⁴⁾ 더더욱 한글에 대해 알아야했을 것이다. 따라서 한글은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언간’을

4) 조선왕조실록 명종 22년 3월 22일, 1447년 정월에 전교하였다.

“대비의 교지가 계시니, 영의정 【이준경.】·영중추부사 【심통원.】·좌의정 【이명(李冀).】 및 예조의 세 당상 【판서 홍섬(洪暹), 참판 이건(李權), 참의 이지신(李之信).】을 즉시 부르라.” 하였는데, 이윽고 대비전에서 이준경 등에게 의지(懿旨) 【언문(諺文)이었는데 사신(史臣)이 한문으로 기록하였다.】를 내려 이르기를...

통해서 볼 때도 왕실과 사대부가(家)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한글로 세세하고 표시하고 있다. 궁중에서 궁인들이나 비빈(妃嬪)들 또한 한글편지로 서로 주고받았으며, 궁 밖의 사람들과 한글편지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조선 전기를 넘어 중·후기가 되면 문학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조선 전기, 중기의 한글사용 또한 일반평민이기 보다는 언어를 소유했던 계층에서 더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한글창제의 본래 목적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일반 백성이 송사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려던 언문창제의 목적은 언문이 창제되고도 한참 후인 조선 중·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인 17세기의 편지로 보이는 《현풍곽씨언간 주해》(2004)에서는 아내, 엄마, 장모 등에게 다양한 계층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보이며, 심지어는 노비에게 보내는 편지도 실려 있다. 언간을 통해 조선시대 문해교육을 찾아보면 왕실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 중반에 노비조차도 글을 읽고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면, 이 당시 한글은 한문과 달리 모든 이를 위한 글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교육된 언문은 '언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게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

2. 학습을 위한 무형식의 한글 문해교육

조선시대 공식적인 언문 문해교육은 기록상 왕실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공식적인 문자는 한자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글이 창제되고 왕실에서는 왕이나 대비가 언문교지를 내려 한글의 사용을 장려하였던 것 같고, 이를 해독하기 위해 사대부도 언문교육을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서상, 제도상으로는 한글 교육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배계층에서 먼저 언문 문해교육이 이루어져 자유자재로 언문이 사용되고 있음은 문학작품이나 남겨져 있는 '언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언문은 일반 평민계층으로 전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의 언문을 통해보면 아이들의 한글 교육은 할머니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무형식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나름의 교재가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아직 찾지를 못했다. 언문 공부는 한문을 공부할 때와 비슷하게 한글을 외워 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현풍곽씨 언간 주해, 246-250). 언문 문해교육은 언문 창제 초기부터 하급관리이기는 하나 과거시험의 한 과목이었고, 궁에서도 훈민정음을 강론한 정황을 볼 때(조선왕조실록, 세조 6년) 시험을 위해 모여서 학습하거나, 개인적인 방법인 비형식, 무형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언문교육은 궁녀들의 경우는 언문을 아는 상궁이나 궁녀가 알려주는 형식을

떠었을 것으로 보이며, 왕실 경우는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한글로 언해한 여성들의 수신서인 《내훈》으로 모여서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헌이나 ‘언간’을 통해 보면 조선시대 언문교육방법은 문자를 소유했던 왕실과 사대부 계층에서는 공식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사대부거나 평민들의 한글교육은 역시 제도적이기보다는 주인이나 언문을 아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언문을 아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언문교육을 한 것으로 보면, 평민들의 교육 역시 무형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언문이 전파되고 교육되어 활용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 조선 후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의사소통과 문화전수로서의 한글 문해교육

언문 문해교육의 내용은 다양하다. 단순히 시험을 위해 주어진 글을 습득하는 것에서부터 조선 초기 성리학적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내용, 일반적인 문화의 전수 등 다양하다. 왕실에서의 문해교육은 한문이 기본적인 것이었지만, 지배계층으로서 통치를 위해 백성들과의 소통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세자에게도 언문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언문 문해에서 중요한 의사소통의 특징은 ‘언간(한글편지)’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 한글은 한문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소소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언문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우리의 생각을 표의문자인 한자로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대부가의 사람들이 남긴 많은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한시(漢詩)도 많이 남겼지만, 우리가 접하는 조선시대의 가사, 시조, 소설 등은 이러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조선 후기 소설의 등장인물 한글이 일반계층에게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설에 담긴 다양한 내용들이 언문 교육의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해교육 과정에서 문화전수도 일어났다. 《현풍곽씨 언간 주해》(2004)에서도 당시의 길쌈, 세탁, 바느질 등의 의생활, 손님맞이에 필요한 머리모양과 외출복 등도 드러난다. 또한 결혼식과 제사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며, 돌잡이와 민간신앙, 금기사항 등의 풍속 등이 드러나 당시의 다양한 문화가 170여 편의 편지 속에 담겨있다. 또 다른 책으로 《음식디미방》은 안동지방 전통음식 조리방법을 기록한 한글 음식조리 책이 있다. 이 책은 여성이 지은 것으로 딸들이 필사해 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필사를 통한 문해교육과 함께 우리의 문화를 전수하는 문화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문해교육의 태동을 일제 강점기의 야학에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글이 존재했던 조선시대에 문해교육이 있었음을 밝혀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선중기에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된 언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왕조실록》과 편지첩인 백두현의 《현풍곽씨언간 주해》(2004), 김일근의 《친필언간총람(新筆諺簡總攬)》(1974)을 통해 문해교육이 존재했음과 문해교육의 결과인 '언간(한글편지)'이 다양하게 쓰였음을 알아보았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중기의 문해교육을 정리하면, 조선의 언문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에는 오히려 지배계층, 특히 왕실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민보다는 관리직 이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문해교육을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전하지는 않지만, 과거제도에 훈민정음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하였으며, 세자 교육에서는 전문적인 선생님과 보모가 교육을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조선중기에 이르면 왕실에서의 활발한 '언간'의 사용은 왕실에서의 언문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편지는 왕래가 있는 글이다. 조선시대 왕을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언문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깊이 있는 언문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편지는 글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조선 중기의 문해교육이 단순한 글자의 수준이 아니라 창작이라는 높은 수준의 문해교육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 것과 달리 여자들만의 글이 아니라, 왕실의 왕뿐만 아니라 편지를 읽고 답을 해야 하는 사대부가의 남자들도 언문에 능통했음을 알게 해 준다.

사대부가의 언문교육도 '언간'집인 《현풍곽씨 언간》(2004)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부부간에 시집간 딸과 어머니 사이에 그리고 장모와 사위 간에 오간 한글편지가 있었다는 것은 사대부가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한글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더욱이 사위가 장모에게 보낸 아이들에게 '언문교육'을 부탁하는 편지내용을 보면 조선시대의 언문교육은 가정에서 외할머니나 할머니들에 의해 이루어진 무형식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편지를 이용해 노비에게 지시하는 것을 볼 때 조선 중·후기에는 노비까지도 언문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문서들을 통해서 17세기쯤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언문을 익혔으며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한글 교육보다 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언문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조선시대 문해교육은 모든 이에게 필요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국사편찬위원회(1990). **한국사 11**. 서울 : 탐구당
- 강신항(1984). 세종조의 어문정책. 세종조문화연구II. **한국정신문화원**. 3-59
- 고순철(1997). 한국 문해교육의 학문적 진개와 과정. **협성논총** 제 8집. 105-123
- 기영미(2009). 언문의 명칭문제와 사회적 의미. **동아시아 문화와 예술** vol.6 133-160
- 김도수(2001). **평생교육**. 서울 : 양서원
- 김슬옹(2005a). **조선시대 언문의 제도적 사용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 김슬옹(2005b).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여성의 언문사용양상과 의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Vol. No.1. 217-252
- 김슬옹(2010).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서울 : 지식산업사
- 김은성(2007). 국어 어문생활사 기술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연구** 제 19집. 437-468
- 김일근(1972). 인간의 국문학상 고찰. **국어국문학**. Vol.- No.58-60. 57-82
- 김일근(1974). **친필언간총람(新筆諺簡總攬)-영인본**. 서울 : 경인문화사
- 백낙천(2007). 국어생활사 자료로서의 인간의 특징. **한국언어문화** 제 34집. 183-198
- 백두현(2001). 조선시대 한글보급과 실용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Vol.- No.92 193-218
- 백두현(2004). **현풍곽씨 언간 주해**. 서울: 한국문화사.
- 백두현(2010). 어문생활사로 본 언간과 한글고문서의 연구 방법. **국어사 연구**. Vol.10 No.-, 41-72
- 시정근(2007). 훈민정음의 보급과 교육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Vol.28 No 33-65
- (사)한국문해교육협회(2005). **한국의 문해교육**. 서울 : 문음사
- 양명희(2013). 문해교육의 개념과 내용분석연구. **인문학연구** 67호. 319-348
- 윤복남(1990). 한국 문해교육의 사회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이만규(2000). **다시읽는 조선교육사**. 서울 : 살림터
- 이상규(2014). **한국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사람들의 삶**. 서울 : 경진출판.
- 이지혜(2011). 문해교육에서 '문해됨'의 의미. **평생교육학회연구**17(3). 1-24
- 장윤희(2005). 국어생활사 관점에서 본 문학 작품의 가치. **국어국문학** 141. 109-132
- 조태린(2009). 국어생활사연구의 사회언어학적 요소. **문법교육** 제10호. 347-368
- 주영하의 4인(2009). **조선시대 책의 문화사**. 서울 : 휴머니스트
- 천성호(2009). **한국야학운동사**. 서울 : 학이시습.

- 한관일(1995). <삼강행실도>의 사회교육적 의미. **교육과학연구**. Vol.9 No.1 99-113
- 홍현보(2012). 우리사전의 왜곡된 '언문' 뜻풀이에 관한 연구. **한글** 298. 51-105
- 황문환(2010).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 연구**. Vol.10 No. 73-131
- 한승희(2006). **평생교육론**. 서울 : 학지사
- 황종건(1990). **한국의 문해교육**. 문해운동의 역사적 의의. 서울 : 문음사
- D.Harman(1987). *literacy. A national dilemma.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 P.Treire and D.Macedo(1987).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 UNESCO(1990). *Adult Education and Development*.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 Jomtien, Thailand, 5-9 March 1990. Paris: UNESCO. pp.123-134

- 논문 접수 2015. 7. 31 / 수정본 접수 9. 11 / 게재 승인 9. 24.
- 이은희: 건국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문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공주대학교에서 평생교육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음.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실습 지도교수,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학력인증문해교사로 활동하고 있음. 관심분야는 성인 문해교육, 청소년 문해교육, 다문화교육, 교육사회학, 평생교육사자격 분야 임.

Abstract

A Study on Literacy Education within Daily Lives through 'Eongan (Korean Letter)' in the Mid-Joseon Dynasty

Lee, Eun Hee(Kongju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at there were literacy education in the Joseon through Eongan (Korean letters) under the premise that it began at the time in which Hangul was first made. We will find out how the literacy educations were formed in the Joseon Dynasty, who were targeted and what the meaning of them are. The books we research are *Hyunpungguakssiungan juhea(2004)*; it was written by Beak Du Hyun which was found in the grave of Jinju Ha,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Chinpilunganchonglan*(Kim il geun)

Through Eongan, used by each social classes in the Mid-Josen, we are able to look at the practical use of Korean and its education. Eongan at of that time shows that literacy educations were taught at home. It implies that the literacy education of Joseon were directed informally as people vividly expressed their emotions and daily lives through Eongan. The Eongan allowed communication. Literacy educations targeted all stratum from princes to slaves in that time. In the point of view that literacy educations were melted in everyone's life as the form of learning, we can consider them lifelong educations.

Also, letters plays the role of conveying lifestyle and culture. They show is various lifestyle such as food, clothing, shelters, traditional ceremonies, manners and receptions of guests.

* Key words: Eongan, Eonsoe, Eonmun, literary education.